

화이자, 어린이 백신 임상데이터 제출

5~11세... 몇주내 사용 승인 신청 FDA 11월 이후 접종 시작할 듯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5~11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 회사는 미 보건당국에 향후 몇 주 안에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현재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16세 이상에 대해서 정식 사용까지 승인된 상태다.

양사는 5~11세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성인-청소년 기준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

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서도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를 생성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더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로이터는 앞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12~15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사용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5~11세 어린이들도 이르면 10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전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화이자

는 10월 중순까지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FDA가 추수감사절(11월25일)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5~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가을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힌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외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 보건당국에도 어린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양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1억원 받고 백지 작품 전시한 덴마크 예술가

호닝 “형편없는 작가비에서 영감” 미술관 “제작비 미반환시 법적대응”

덴마크의 저명 예술가 호닝은 작가비를 고발한다며 1억 원 넘는 돈을 미술관에서 지원 받고도 백지상태의 작품을 출품했다.

29일 영국 언론 가디언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Aalborg) 현대미술관에서 ‘워크 잇 아웃’(Work It Out)이라는 주제 아래 최근 개막한 전시회에 예술가 옌스 호닝(56)은 텅 빈 화폭 2점을 선보여 미술관 측에 당혹감을 안겼다.

미술관 측은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호닝에게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평균 소득을 다른 그의 과거 작품들을 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닝의 원작에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지폐들이 부착됐기에 미술관 측은 작가에게 작품 제작에 필요한 돈 53만4000 크로네(9970만원)와 작가비 2만 5000 크로네(470만원)를 지급했다.

이 미술관의 라세 안데르센 관장은 “호닝은 본질적으로 우리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작품을 창조했다”며 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 제작비 53만4000 크로네의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호닝은 현지 DR방송에 “이번 일은 절도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고, 계약 위반은 이번 작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작품 제작비를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작은 미술관 측이 자신에게 제시한 형편없는 보수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의뢰받은 두 작품을 원래의 도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서 약 460만 원의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름 동났어요”...폐쇄 안내판 내건 영국 주유소 영국 맨체스터의 한 주유소에 28일(현지시간) 기름이 없어 영업장을 일시 폐쇄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영국에서는 트럭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공급난과 사재기로 주유 대란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머스크 “가상화폐 파괴 불가능...규제 말라”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미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질문받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었지만 “가상화폐 파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머스크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도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전날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수백 곳에 이르고 또 수천 종류의 토큰이 있다”면서 “그것들이 규제 영역 밖에 있으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밝히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등을 띄워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3종류의 가상화폐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내돈 투자한 기업’ 판결한 미국 판사들

WSJ 조사로 131명 적발

대부분 본인에 유리한 결론

미국 연방 판사 131명이 자신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수백 건의 기업 소송을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법조 윤리에 어긋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맡았을 때 회피하도록 규정한 연방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법관 재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연방 판사 131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 소송 685건을 심리했다. 소송은 연방 지방법원 129명과 연방항소법원 2명이다.

이들은 자신 또는 가족이 주식을 가진 회사가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된 사건을 한 건 이상 맡았다. 61명의 판사나 그 가족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들 법관 판결의 약 3분의 2는 판사의 재정적 이익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WSJ는 주장했다.

문제를 지적받은 판사 56명은 329건의 소송에서 자신이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새로 판사가 배정돼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WSJ는 짚었다.

판사들은 다양한 해명으로 반박했다. 일부는 법원 직원을 비난했고 이해 상충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내 검사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지적했다. 어떤 판사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했다. 소송을 맡기는 했으나 다른 방법으로 이관하는 등 명목상 역할만 했다는 항변도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법관들의 부정행위는 ‘누구도 자기의 사건을 판결해선 안 된다’는 미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은 어떤 법률도 판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1974년 이후 연방 법은 법관이 자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이해관계를 지닌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칙 또한 연방과 주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언론인, 기업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브라질 90여년 만에 최악 가뭄...농산물 생산 차질

물가 상승세 내년까지 지속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불가피

세계적인 농업국가인 브라질에서 9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중서부와 남부, 남동부 곡창지대의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물가 상승은 물론 국제 곡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 유명 민간 연구기관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안드레스 브라스 연구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최소한 내년까지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올해 1~8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5.67%, 8월까지 최근 12개월 누적은 9.6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이 설정한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 3.6~3.9%는 달성되기 어려워졌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과 농업공사는 올해 농산물 생산량을 2억5170만~2억5230만톤으로 추산해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

다봤다.

이 전망이 맞으면 2000년대 이후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바꿨던 농산물 생산량이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체 수출 중 농업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브라질 경제부 자료를 기준으로 2011~2020년에 농업 부문 수출은 1조 달러에 육박했고 80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 기간에 중국은 브라질산 농산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특히 대두는 수출량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